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제주시 도두동 양순옥, 김부자 해녀 - 1

해녀: 양순옥(1953). 현재 회녀 회장

김부자(1954)

인터뷰 일자 : 2019. 08.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해녀 : 양순옥(A로 기록), 김부자(B로 기록)

Q : 아까 이쪽 비 올 때는, 바당에 비 올 때도 갑니까?

A : 비 올 때도 가주마썸. 근데 비 올 때도 내(川) 터져도 그 줄기만 피하면은 이제 바다에는 이상이 없는거고예. 여기 해녀덜이 주로 이제 태풍주의보, 그 우리 정관예, 해녀덜도 정관이 있습니다게. 무조건 작업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으면 이제 태풍주의보 안 내리면 간다. 예를 들면 작업 나가면 시간상 정해지고, 네시(4시). 또 이제 기준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름 기준을 하는데, 물 때 조류가 보름 기준을 합니다게. 보름 기준해서 이제 오일(5일)은 쉬고, 십일(10일)은 작업하고, 십일(10일)은 작업 가는 중에 날씨, 태풍주의보만 안 내리면 무조건 작업 간다. 거문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뭐 안 가는 사람 한해서는 우리가 강제론 안 한다. 이렇게 정관이 다

Q : 그 날씨에 따라서 바다 속이 상태가 어떻해마썸?

A : 예, 날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아무래도 날씨가 맑은 날씨였을 경우에는 바다도 또 이렇게 맑아서 우리 그 작업하는데서 지장도 없고 마음도 확, 상쾌하는데,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어등칭칭 하다면 또 마음 자체도 또 그렇고, 또 물도 좀 어디가 모르게 우리가 그 날씨 좋은 날처럼 완벽한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예

Q : 그러면 여기 바다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나뉘져 있는 거죠?

B : 저 이호, 이호 쪽, 이 서쪽으로 가면 이호, 이호 경계선이 있고, 또 동쪽으로 가면

A : 용담동이

B : 용담하고 저 경계선이 있고. 경계선이 다 옛날부터 잇우다.

Q : 바다 밭이 이름들이 다 있잖아예.

A, A : 예

Q :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알아점수과?

B : 여를 말하는 거 마썸?

A : 여는

Q : 저 서쪽으로 한 번 영

B : 이쪽으로마썸

A : 절로 가면은 저 주여,

B : 그디가 곱이우다.

A : 예. 여기 가른 저 남보리즈베기, 즈베기여, 넓거리, 또 저 주층여,

B : 보리즈베기,

A : 저기 여가 또 무신 여가 잇어

B : 동쪽으로 가도 주여도 있고예. 또 큰설, 큰설 있고예. 또 저쪽으로 가른 골채

A : 골채 올레

B : 골채 영덩이

A : 골채 영덩이, 더 동쪽으로 가면예 개구치, 여 이름이

Q : 그 여에 내가 이 여에 와졌저 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A : 이제 사름마다 다 이제 꼭 같은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하는 여들이 있습니다게. 이렇게 작업하다보면 내가 선택을 어느 여에 가면 어떤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 여를 찾아가예. 문딱 그 생각허는 것이 다 그 여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허는 여가 있습니다게. 아까 우리가 어느 여, 어느 여 하듯이, 내가 생각하는 여가 있습니다게. 그러면 자기만의 우리 누가 벗해서 간다. 그러면 누가 같이 가자. 오늘 개구치 가자. 우리 불락여에 가자. 오늘 우리 주여에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같이 의논하에 이제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B : 갈 사름덜만

A : 갈 사름덜 한에

B : 가고 싶은 사름덜만

Q : 그러면 저기 해경을 허면은 그 도두 바다를 전부 해경 허는데, 갈 사름덜만 정해서 그 여에 가는 겁니까?

A : 아니, 그것도 그렇지 안허고예, 해경 당시에, 소라 해경 당시에는 이제 전부 바다를 트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부분, 한부분 해서 잘라서 해경을 하면 또 그 해경 현 데서도 자기만의 생각허는 그 바다가 잇어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멧시에 작업을 한다. 멧 시에 나간다 허면은 그때 가서 자기만의 이제 가는 여들이 찾아가서 이제 소라를

Q : 찾아가는 여를 찾아가면 어떻게마썸. 그 다음에. 한바퀴 휘 돌아 봅니까?

B : 자기, 자기가 이제 어디가 뭐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자리에서 저 작업을 허고 예, 만약에 이 앞 바당은 그냥 무조건 뭐 어디 가겠다 허면 바로 거주만은, 만약에 막 멀리예. 깊은 바당에 나갈 때는예. 우이에 산이나 집예. 어느 건물이나 기준 잡앙 이 건물 어느 쪽으로 가면 그 먼 바당으로 휘어 갈 때는 산이나 이 건물을 기준행 어느 쪽으로 가면

A : 무슨 여가

B : 거기에 가든예. 틀림없이 그 여를 찾아가져마썸.

A : 무슨 여가 있다

B : 깊은 바다에도

Q : 육지부를 경계를 하는구나

B : 예

Q : 그러면 그 여에 가면 어떻게 허는 거마썸?

B : 거기 가면 닷 줄 놔근에 여면, 닷 줄 놔. 옛날에는 닷을 안 허여근에 돌이가 벗 행 테왁 잡앙예. 한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한 사람이 가고, 이렇게 헤신디. 이제 요즘 멧 년 전서부터 십, 한 이십년 넘었주

A : 줄, 닷을

B : 닷을 놔예. 자기 숨에 맞은 닷을 낵 돌멩이 낵에 닷을 걸게 만듭니다. 테왁이 물 조류에 흘르지 안 허게. 경 행 놔낭 거기서 작업을 허주마썸. 허면

Q : 물은 몇 메타 정도 됴수과?

A : 한 십오메타(15m)

B : 십오메타(15m) 깊은 딴
A : 보통 십오, 십칠
B : 십오메타(15m) 이십메타(20m)까지는예. 역질 물질을 허는 사름이 잇입니다.
A : 상군덜
B : 여에도 깊은 디. 그런 디 가면 또 물건도 있고예.
A : 그런 사름덜은 해너덜이 골라
B : 상군덜
A : 상군덜만
Q : 경 허른 거기 가면 구쟁기는 어떤 데에 잇어마썸?
B : 구쟁기는 그냥 우에 잇입니다. 깊은 바다에는.
A : 여 우에도 있을 뿐더러 또 보통적으로 보면
B : 그것도 시기적으로
A : 고랑, 고랑 고랑더레 잇어예
B : 시기적으로예. 소라가 아래 먹을 때 있고
A : 우에
B : 또 다 올라 왕 잇일 때도 있고마썸. 시기적으로 틀러마썸
Q : 언제 시기적으로
A : 보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월(10월)달에 우리가 저 예를 들어 구월(9월)달에 해지를 하
지만 이제 주로 시월(10월)달에가 막 그걸 전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는예. 거의 우에가 있는 거
B : 올라 와
Q : 우에 있는 거는 그
A : 돌 우에
Q : 돌 위에
B : 예. 나와 있고. 돌 고망에 박아지질 안 해 있고, 다 우에 나와
Q : 박아질 때는 언제마썸?
B : 박아질 때는
A : 박아질 때는 이제 한 십이월(12월)달, 십이월(12월)달 정도
B : 추워 가면예
A : 그레 가면 삼사월(3,4월) 되가면 또
Q : 우터레 올라오고
A : 우이로 올라오기 시작허당 보문
Q : 알 낳고
A : 이제 여름에는 금치, 금지기 되면은 아예 그냥 가쪽으로덜 그냥
Q : 알 낳, 싸기 때문에
B : 소라덜이 알 찔철 되문예. 산란기철 똤문 소라가 가쪽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Q : 아, 올라와
B : 소라가 없던 디도 침 깊은 바당에 것들도 올라 왕 알을 싸예. 경 허른 우리가 그 알 찔철
에는 어떻허당 영 한번 떼 보문예. 퍽퍽허게 하얀예. 그 예.
A : 진물이
B : 예. 진물이 막 퍽퍽 솟아나와

Q : 솟아 나
A : 예. 소라에서
B : 알 째 시기에
A : 우리가 저 다른 사름덜 보기에는 뭐 소라나 전복이나 이런 보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것말 알지예. 건디 우리가 경험으로 한, 해보면 것도예. 이 저 날으는 그 저 뭐가 있습니다.
B : 야행성이라서
A : 야행성이라서
B : 밤에는
A : 날아다녀
B : 막 날아다니지. 경 빠릅니다.
Q : 아, 소라도?
A : 예
B : 예. 소라도 빨라마썸. 모든 해산물이 빨라마썸. 해삼도 마찬가지.
A : 속도가 빨라. 해삼이나
Q : 해삼도 빨라?
B : 예. 해삼도 그렇게 빠릅니다게.
Q : 기어다니질 안 허고?
B : 예
Q : 경 허든 전복은 어떤 데 많이 붙어 잇우과?
A : 거는 주로 보면은 엉덕 아래
Q : 엉덕 아래
A : 예. 것도예. 전복도 전복 나름이라. 이제 지금은 전복을 잘 안 나서 그런데, 옛날에 전복 만히 날 때는 바깥에 멧 메타 한 십메타(10m)이상, 한 칠메타(7m)이상 정도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보편적으로 옆에나 우에나 이렇게 감태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보통 오메타(5m) 밑에 수심에 있을 경우에는 거의가 다 돌 엉덕 아래
Q : 거 십메타(10m)니 칠메타(7m)니 그 물 깊이는 어떻 알았수과?
B : 그거는 우리가 짐작
A : 딱
B : 딱예. 한발 두발예
Q : 물 한 십미터(10m) 넘어가면은 막 수압
B : 그렇주마썸
Q : 수압도
B : 수압이 팽겨마썸
A : 경 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사람을 아무나 못 가고
B : 그런 상군덜
A : 상군 중군 하군 허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고
Q : 수압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햄수과?
A : 사름덜마다 체질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그 깊은 디 이렇게 상군덜 허는 거 보면, 상군덜 이 허는 거 보면 이제 가쪽에는 수압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가는 거고, 또 상군덜은 그 수압에 따라서 상군덜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고,

B : 경 현대 그런 데 갈 때는 그 수압을예. 맞추젠 허면 물이 썰물 때는데.

A : 동쪽으로

B : 동쪽으로 흘리지 안 험니까. 동쪽으로 물이 가면 머리를 동쪽으로 향해서 숨비어야 되고

A : 서쪽으로

B : 또 등물이 낭 허면 또 서쪽으로 흘릴 때는 머리를 서쪽으로 해근에 물에 들어가야만이 이 귀 수압도 안 때리고, 펜아해마썸. 경 안 행 만약에 물이 서쪽으로 갈 때 동쪽으로 향행 숨비면에 더 수압이 귀 때리고예

A : 말 안 허여. 작업을 못 허여

B : 귀가 막 팽겨붙어. 게난 물 차례로 숨비렌 옛날 어른덜 곧듯이, 물 차례로 허문 그나마 좀 편안하고

A : 우리도 그냥 편안하고

Q : 그니까 그러면 깊은 물 속에 전복이 있는데, 이 전복은 이 어디 서식지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B : 예. 깊은 바다에는. 십메타(10m)이상 돼 가면 서식지가 저 서식 허는 데가 딱 정해진 곳 이 아니고, 이제 가에는 정해져마썸. 붙어난 팜에 강 보면 옛날부터도 붙어난 팜엔

A : 거의

B : 전복이 꼭 붙어예. 거의예. 또 있는데만 있고. 이 전복이랑. 경 현대 깊은, 십메타(10m)이 상 돼 가면 거 재수조면 아무데나 다니당 보면 옆에도 착 붙어 있고, 또 우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Q : 요즘은 전복 양식덜 햄수과, 종패?

A : 예. 종패 허긴 햄수다. 종패는 허긴 해도예. 것도 이 밭에 농사 지으듯이 잘, 밭에 농사도 뭐 잘 되는 밭도 있고 못 허는 디도 있고 허는데, 저희 도두 같은 경우에는예 그 큰 거 료에 잘 못 봐수다게. 그거를 많이 봤드라면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여건상이 일로 절로 여건이 좋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지원을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그런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혜택 받는 것이예. 너무 침 아꺼워서 잘 안 받는데

Q : 거문 도두 바당에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잇입니까

B : 다른 동네에 잇인 해산물은 다 나예. 다 납니다

A : 많이 없다는 것뿐이주

Q : 많이 없다는 거

A : 예

B : 이제 뭐 모든 게 다 다른 동에도 고갈 되는 상태렌 허주마는, 또 특히나 우리 도두 같은 경우에는예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이제 단물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성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알을 많이 씹니다. 막 보여예. 경 했당 어느 날 어느 시에예 싹 죽어버리고예. 경 험니다게. 해조류도 마찬가지로마썸. 해초류도 옛날에는 상당히 이쪽엔 많이 났는데, 뭐 물론 다른 동네도 뭐 조끔씩 물량이 적어지긴 햄주마는 그나마도 도두로 같은 경우에는예 엄청 엇어져붙어예. 해초류가. 옛날부터는 뭐 우미, 툫예, 무 몸 이런 미역 이렇게 엄청 우리 도부 바당이 좋아나수다게. 물건이 경 현디

Q : 해삼은 종패도 안 허고

A : 해삼 험니다

B : 종패 험니다

Q : 종패 허고, 해삼은 많이 남수과?
B : 그나마 그런데로
A : 그나마 그런데로
Q : 해삼은예. 해삼이 많이 다른데도 나는 거 닳아
B : 종패로 인해서 많이 나
Q : 미역, 톳, 성계, 문어 구멍은 잘 알아집니까?
A : 예
B : 예
A : 다 자기만의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허허허허
B : 남 모르는 고망이 있어마썸. 자기가 가문 잡는 고망이에
Q : 아. 자기가 잡는
B : 오늘 잡아불어나근에 혼 이틀 강 보른 또 그디 앓아난 자리에 그 고망에만 계속 앓아마썸
Q : 그건 어떻 생겨수과?
B : 뭐, 모살도 있고예. 자갈도예 저 문어덜이 영 자기 위치를 감추젠예 저 자갈덜 막 모아냥
있어마썸
Q : 자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갈 모아놔?
A : 예. 우리 사람 집 짓듯이 문어도 다 그렇게 집을 자갈로 다
B : 자기 위치를예. 가리젠예. 경
Q : 문어 잡으면 집 어떻게 합니까? 창통이만 데쓰믄 괜찮습니까?
A : 창통이만 데싸도예. 움직여서 기어나가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문어 그 꽃이를 다
하고 다니는데, 안 허고 다닐 때는 이제 이빨, 이빨도 빼고, 창통이도 뒤집으고
Q : 아, 이빨
A : 우선예. 이빨
Q : 이빨을 빼 뒤놔야 힘을 일러버리니까
A : 예
Q : 그 특별하게, 옛날엔 여기서 미역이 하영 나났지예. 옛날 미역
B : 예. 미역, 몫 엄청 나수다
Q : 생각 남수과?
B : 예게
Q : 한번 얘기 좀 해보십서
A : 아니 미역은 그런데로예. 이제 미역은 그런데로 날만큼 난다고는 생각을 해마썸. 건데 바
깎으로는 잘 안 나는데. 예날처럼 미역 깎이 안 주다 보니까 미역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이 도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주로 식당에덜 미역덜을
Q : 그렇지
A : 많이 쓰기 때문에 미역깎도 괜찮아져
Q : 작업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들을 한 번 해보십서. 이 작업 허면서, 해녀 물질 하면
서, 여기 도두에서. 여기 옛날 바당 메울 때 같은 때도 해녀들
B : 그거는예. 그 나 곁은 경우에는예. 그땐 좀 젊으기도 해서예. 한 이십년(20년) 전에 이 앞
에 바다에 좀 깊은 바다에 한 거의 십오메타(15m) 정도 된 바다에 들어간 보난 문어가
큰 것이 나완 있어예. 경 헨예. 그걸 탁 잡아예. 올라오는 도중에 양다리를예 딱 벌런 탁
붙어부난예 올라오지 못 허연. 경 허연 죽을 뻔 허단 살아난 적, 예, 그런 그럴 때 겁나

고

Q : 아, 해산물 잡는

B : 또 어땡허당 날이 잔잔헌 바당에 들어가도예. 갑자기 겨울에는 하늬로 그양 앓아당 청예. 막 그냥 이 가에 오젠 허믄 얼 먹은 적도 어땡허다근에 일년에 한번예. 또 멧년에 한번 잇일 때 잇입니다게. 옛날에 이제 여기 어촌계장 사모님 작년, 재작년이 돌아가셔불었주 마는 가이도 물질할 때 같이 물엘 들어신디 그냥 하늬로 앓안 막 치는 거라예. 올라오지 못 혈 거 닻안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져'. 이거 어땡허믄 좋고, 멧 사름이라양. 가에 사름덜 빨리 나난덜 와불고. 아무때도 욱심 부리단 보난 '아이고, 어땡 헨 날고' 허당 보난 뵈려보난예. 첨 살렌 허난 산디양 절이¹⁾ 앓아단 획 허게시리 던지난예. 넓은 팡더레 앓당 탁 허게 지천예. 경헨 살아난 적도 있고예. 또 기뻐덴 헨 날은, 헨 때는 우리가 어땡허당 일년에 한 멧 번씩은 저 관탈섬에 가예. 관탈섬에 작업가예. 작업 강 보믄예. 큰 전복 한

A : 일키로(1kg) 이상

B : 일키로칠백(1.7kg)까지도 나 해 와수다게. 일키로칠백(1.7kg)짜리 전복도 큰 거에 떼언예. 이럴 땐 진짜예. 이거 뭐 집이나 하나 얻은 간, 밭이나 하나 얻은 간 경 헨

Q : 그 관탈섬은 여기 도두 소관이

B : 소관은 아니고

A : 소관은 아니고, 원래 저 섬이 제주시. 제주시 소관은 제주시 소관인데, 예 이제 멧 년 전 만 해도 거의 그 추자에서 자기네덜이 그 독점이다. 가까우니까 거기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기 사름덜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추자도 해녀덜만 그 간다는 표시가 없더라고예. 섬 자체가 우리 제주시 관

Q : 우연히

A : 뭐가 뵈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Q : 그 배 타가지고 멧 분 정도 갑니까?

A : 한 시간(1시간)

Q : 한 시간?

B : 요즘은 기계덜이 좋아노난 빨라노난 한 시간이고, 예전에는

A : 두 시간

B : 두 시간씩 걸려수다게

Q : 강 작업하고, 한 멧 시간 작업을 혈 거?

B : 하루 종일 작업을 헵니다

Q : 하루 종일

A : 한 여섯시간

Q : 거긴 물건 많을 거라예

B : 예. 여기 보다는 수입이

A : 괜찮으니까

B : 예. 뭐 바다가, 바다가 좋아예. 우린예. 솔직한 말로예. 뭐 부모한테 뭐 얻은 것도 엇고, 이추록 허당 뵈려보난예 바다에서 모든 것이 나근에 자식덜 공부도예. 이제, 우리가 못 배왔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아이덜 공부만큼은 진짜 시키젠 행예. 뭐 아이덜 공부 시킬 만큼 시겨졌고예. 또 바다에서 나온 돈으로 뭐 집도 사 보고, 집도 지어서 멧 번 지어도 보고, 이제 또 살림도 그렇게 막 쪼달리는 생활은 아납주게. 물론 우리 고생은예. 엄청나

1) 절이 : 파도가

게 엄청난 고생을 해근에예. 애기 나도 한 십오일만 뉘든 바다에 가고예. 또 스무날만 잊
이른 건 막 쉬는거고

A : 쉬는 거고, 일주일만에 간 사람도 있고,

B : 경 험 가고, 여기 잇인 우리 회장 같은 경우엔 물질 안 해도 살겨주마는 지금도 다른 사
업, 식당 사업 해도 그건 다 놓, 다른 사름헌티 빌언 내뉘근에 이녁은 매날 하루도 빠짐
엇이 우리영 7치 작업 다니고. 우린 바다가 좋아마썸. 히히히

A : 어느제 바다에

Q : 회장님 얘기 해봅서. 좋았던 얘기라던지

A : 저도 아시다시피. 예 그때 시절에는 해녀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름들이 다 물질을 배웠었우다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안 허고, 내 취미 생활
에 이렇게 물질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당시에만 해도 집안에 못 사는 사름덜이
거의 물질을 했었는데, 저도 열일곱살(17살)에 강원도 그 속, 저 이 아야지라는 섬에 첨
저 지방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그디 갔을 때 삼박사일(3박4일)을 걸려서 갔었는데 이
제는 하루에 가서 허고, 또 그디 갔다 와서 이제 열아홉살(19살) 나는 해에는 여수 지방
으로, 전라도 지방으로 한 칠년(7년) 정도 다녔었는데, 이제 지금은 삶이 이제 또 저희들
도 이렇게 해녀라는 생활을 그때 우리 애들 키와 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가졌습시다게. 또 이 해녀, 이 뱃놈 옛날 옛말이 있는 거 아니광예. 얼마나 해사
뱃놈 배에 종살이를 하느냐. 해녀도 해녀자를 열자를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 첨
쌍놈이 직업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 험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애
들 한테는 절대 이런 직업을 선택해 주지 말자는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삶이 삶이 그렇게 이제 좋아져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 하다 보니
까 아 이제는 떳떳하게시리 우리 해녀덜이 이제 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열, 고개도
떳떳하게 들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시리 말도 할 수 있
었고, 오로지 우리 해녀의 우리 세상이 돌아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저희는 오늘 날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게.

Q : 아니, 작업하면서 워낙 작업도 잘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허니까 좋았던 거는 어떤 게
좋았던 거 같수과?

A : 예. 좋았던 것은 그렇습시다게. 그 옛날에 그 이제 팔, 팔십칠년(87년) 팔팔년(88년) 정도
까지만 해도 소라 깎이 굉장히 좋았습시다게. 내가 이제 팔팔년 전에 그때는 보통 우리
가 작업 가면은 이제 뭐 오십근(50근) 육십근(60근) 백키로(100kg)까지도 작업, 소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팔천이백원(8,200원)까지도 갔습시다. 팔십삼년도(83년도), 팔십사
년도(84년도)에 이렇게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우리가 땅을 샀을 때 한
평(1평)에 이만원(20,000원), 만오천원(15,000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론 소라는 많이 있어도 소라 깎이 안 주다 보니까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직장
생활 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을 때, 이제 가고 싶을 때 가고, 누구한테 이제 구애를
안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해녀덜 했던 사름
덜은 소라 깎 좋았을 때는 뭐 하러 가면 땅으로 기준 허면은 몇 평 깎을 벌여 와수게게.
그때 칠십(70), 칠십키로(70kg)만 잡아도 칠천원(7,000원), 우리 해녀아덜에게 칠천원씩만
뉘도 칠칠은 사십구 한 평, 하루 가면 몇 평 깎을 벌여 왔으니까.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 해녀들이 보통적으로 보면은 다 부자가 뉘을 걸로 봅니다. 뭐. 저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다 부자덜이 뉘습시다.

B : 물론 우리 도두 해녀 중에서도 여긴 뭐 사업도 했고 영 허난 워낙에 침 잘 부자로 살고 있주마는 또 그나마 보편적으로 우리 해녀덜 우리 해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사십 명(40명) 중에 좀에 처지게 사는 사람덜 엇어마썸. 다 자기집 가지고 다예. 살만큼 농한테 경 구애 반양 사는 사람도 엇우다. 물론 부지런헌 끝에 다 경 험주마는 자기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엇이 살아갑니다.

Q : 좋은 점은 그거고, 작업 하면서 아, 정말 힘들었다 이게 뭐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B : 아유 힘들었다 헐 때는 많아마썸. 바다에 갔다 오민 노곤하고, 좀 어디 몸살이나 허고 헐 때는예. 어떻 집에 오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허연 배와근에 해집신고’ 이런 생각 헐 때도 잇어집니다.

A : 이제 제일 좋은 점에는 이제 더 가고 싶다는 거는 해녀 탈의장으로 모여지면 웃음을 쥔 스트레스 풀리는 것이 해녀 탈의장이라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간다.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아시다시피 해녀들은 칠성판을 등에 지고 해녀 작업을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허여예. 우리가 그 순간을 영, 영초(0초)를 이 사람이 생각을 못 해서 우에 올라오면은 그런 그 욕심에 그렇게 그 많이 해서, 예 해녀질을 하면서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그 분들도 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죽으라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바다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해녀 생활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영 영 영초(0초)를 그 순간에서 사람이예. 이

Q : 그럼 재미있는 거는 여기 해녀들이 모여져가지고

A : 예. 웃음을

B : 옛날에는 이런 탈의장이 잇어수과게. 옛날사. 경헌디 지금 우리 세대는 이런 좋은 집 짓고, 이제 여기 저기서 좀 지원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예. 병원도 이제 어디 아프면 병원도 좋게 갈 수 있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여기 모여 앗앙 우린 경 험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것도예. 직접 우리가 행 먹곡예. 또 우리가 공동 작업을 갈 때는 한 두 사람을 남경 “야, 이 우리 즈베기 먹고푸다게 즈베기 행 놔두라” 허문 즈베기 행 놔두문 갔다 왕 덜 다 모영 그 맛이 꿀맛이라예. “아이고, 오널랑이 국수허라” 허문 국수 해근예에 먹고, 재미납니다게. 게난 여기에 안 오면예 병 날 거 닻고

Q : 그 해녀 분들하고 남편하고 관계는 어떻 험니까?

B : 다 이젠 다

A : 아, 없잖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게. 저는 저, 저의만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이 해녀덜 탈의장에 오면은 여자덜이 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예

B : 남편도?

A : 해녀 남편덜은 좀 불쌍허다. 허허허

Q : 왜 불쌍해?

A : 왜 불쌍허느냐면 아무래도 작업을 갔다 오면은 좀 어딘가 모르게 피곤을 허다보면 이렇게 대우라는 것이 그럴잡아예. 잠자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탈의장에 모여 앗으면 말만 허다보면 아유 해녀 남편덜은이 진짜 불쌍허긴 허여이

B : 그런 얘기덜 험닐게. 제때 밥이라도예

A : 시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B : 거 “이녁냥으로 먹읍서” 영 해된에 바쁘면 와지고

Q : 그 경제적인 건 어떻 험니까? 경제적인 거

B : 경제적인 거는 다 우리 도두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잡는 사름은 불과 한 두 사람 있
이나 마나 허주

A : 다 여자가 해

B : 다 자기가 여자덜이 다 경제권도 잡아

Q : 그러면은 그 경제권 잡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

B : 어떻게 뭐, 이제는 뭐 옛날 님지 안 허영 다 이제 은행으로 다 들어오지 안 험니까. 물건
예.

Q :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여자가 책임지는 거?

A : 예. 여자덜이 책임지는거

B : 그렇다고 또 우리 도두 같은 경우에는 경 남편덜이 놀멍예. 여자만 의지 행 사는 사름덜
은 엇어마썸. 다 자기 벌이덜을 허난

A : 자기 벌이 허여

Q : 자기 벌이 하면서. 그 여자가 벌어 온 해녀가 벌어 온 돈이 집안에서 어떤 데 쓰이고 있
다고 생각이 듭니까?

A : 모든 가정 살림이 이제 남편 벌어 온 돈은 이제 적금은 들고 거의, 이제 이제는 뭇로 이
젠 조금만 해도 다 은행으로 가겠지만 옛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그 초대에는 그나마
그래도 숨기는 맛이, 은행에 잘 안 가고 숨기는 것이 있지 안 험니까게. 예, 그런데 이제
남편 벌어오는 거는 남편이

B : 앞세우고, 내세우고, 덩어리돈 만들어

A : 저, 용돈 더 얼마 드러두고 나머지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또 여자 벌어오는 거는

B : 집안에 생활비

A : 급저똥 아이덜 학비 주고, 뭐 차비고 주고, 우리 가정 살림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 우리 이 해녀덜 벌어오는 돈은예. 뚜렷한 그 뭐가 없어마썸. 저만이 아니고 다 해
녀덜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허고 있을 거우다게. 딱 목돈이 되지 않다 뵈려보니까 그날
그날 벌어와서 이제 물론 저 한 물치 계산은 해서 목돈도 오지만 거의 주로 그거에서 살
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보람난 그 딱 정기적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B : 아니 게도 그나마 또 목돈 만드는 사름도 있주마썸

A : 예게

B : 야구들이나 엇고 애기덜 뭐 행 다 커불고 현 사름덜은 만드난

A : 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세대는 그러게 되는데, 애기덜 어렸을 때 학비도 주고, 용
돈 써 가는 거고, 차비덜 줄 때는 거의 해녀, 엄마들이

B : 생활비

A :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나가